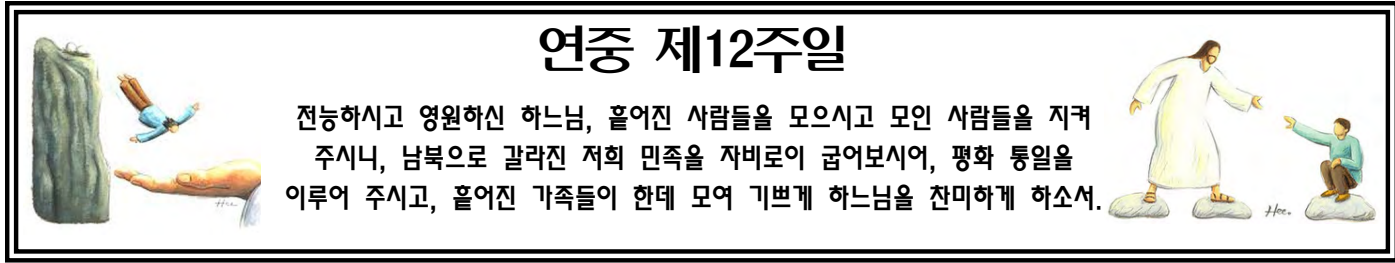


공동체 소식



**연중 제12주일**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흠어진 사람들을 모으시고 모인 사람들을 지켜 주시니, 남북으로 갈라진 저희 민족을 자비로이 굽어보시어,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흠어진 가족들이 한데 모여 기쁘게 하느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6월 기도지향

-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의 가정을 위하여
- 육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의 가정을 위하여

6월은 '예수 성심 성월' 입니다.

교회는 해마다 6월을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 성심을 특별히 공경하는 예수 성심 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성심 대축일을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다음 금요일에 지내는 것은 예수 성심의 사랑이 성체성사와 깊이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1요한 4,16)라고 하였듯이, 예수 성심은 하느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6월 평협회

- 일시 : 6.19(주일) 미사 후.

6월 총구역회 모임은 쉽니다.

6월 맨하탄 및 로렌스 공동체 미사는 없습니다.

본당 쉼기도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모임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10:00, 본당 나자렛관.

본당 평일미사에 참여하는 것은 신심생활의 근본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말씀

생각을 조심해야 해요. 그것은 언젠가 말이 되니까요.

말을 조심해야 해요. 그것은 언젠가 행동이 되니까요.

행동을 조심해야 해요. 그것은 언젠가 습관이 되니까요.

습관을 조심해야 해요. 그것은 언젠가 성격이 되니까요.

성격을 조심해야 해요. 그것은 언젠가 운명이 되니까요.

오늘날 가장 심각한 질병은 한센병도 아니요 결핵도 아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로 부터 받는 무관심이다. 신체적인 질병은 약으로 고칠수 있다. 그러나 외로움이나 우울증을 고칠수 있는약은 바로 사랑이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44	213	170	39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주	문예나 요안나 차민서 임마누엘	정예찬 미카엘 문호진 안토니오
차주	정예진 한나 정예찬 미카엘	문호진 안토니오 김준영 요셉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최은미 아네스	신혜경 마리아 박희영 가타리나
차주	정수한 베드로	홍순익 마르티노 최은미 아네스

애찬 봉사자

금주	김명은, 한춘희
차주	유수경, 박동희

헌금 봉사자

금주	문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차주	박희영 카타리나, 이우영 가브리엘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6/12	73명	299불	0불
(총 0세대)			

연중 제12주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르코린 4,18-

2016년 6월 19일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홍 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 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 회 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 오늘의 전례



오늘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너희와 너희의 아들이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의 운명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 독서 말씀대로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 그림 묵상

### 민족의 화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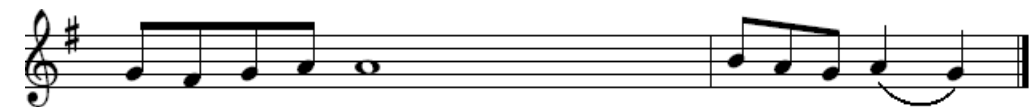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이르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의 해법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민족이 하나 되어 원대한 뜻을 펼쳐나가길 바라는 주님의 축복에 다가가기 위해 진실로 회개하고 한마음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정미연 소화대레사

제 1 독서 :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30, 1-5

<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다시 모아들이실 것이다. >

화 답 송 :



◎ 주님, 흠어진 당신 백성을 모으소서.

○ 민족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먼 바닷가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흠으신 분이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양 떼를 돌보듯 지켜 주시리라.” ◎

○ 정녕 주님은 야곱을 구하셨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네. 그들은 환호하며 시온 산에 올라와, 주님의 선물을 받고 웃으리라. ◎

○ 나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위로하리라. 그들의 근심을 거두고 즐거움을 주리라. 사제들에게는 기름진 것을 배불리 먹이고, 내 백성을 내 선물로 가득 채워 주리라.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4,29-5,2

< 서로 용서하십시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의 교회는 하나의 빛, 온 세상에 퍼져 있어도 갈라지지 않으리라. ◎

복 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8,19 ~-22

<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다. >

# 세 마

##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집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저지른 죄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의 나라를 갈라놓으셨기 때문입니다(1열왕 11,11). 이렇게 갈라진 두 나라는 얼마 가지 못해서 멸망하고 마는데, 북 왕국은 기원전 722년경 아시리아에, 남 왕국은 587년경 바빌론에 각각 패망합니다. 열왕기 하권은 이스라엘에 닥친 불운을 두고 임금들과 백성들이 하느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느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분열과 멸망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런 상황을 다른 민족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 임금들과 백성들의 탓으로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느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고 생각하며, 다시금 하느님의 법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느님께서도 그런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리라는 확신으로 외적인 나라가 아니라 마음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더욱 큰 힘을 쏟았습니다. 오늘 1독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잘 녹아나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의 아들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의 운명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신명 30,2-3)

이스라엘의 이런 태도는 오늘날 분단의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분단의 원인을 외세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우리들의 문제로 돌리는 것. 그래서 두 번 다시는 같은 문제를 겪지 않도록 깨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2독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가 일치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마음가짐을 알려줍니다.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상대방의 탓도 크지만 어쩔 수 없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전쟁으로 인해 생겨난 원한, 격분, 분노, 폭언, 중상 등을 벗어 버릴 때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서로 따지며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리려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두 번 다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잘못을 따져 모든 것을 바로 잡는다 하더라도 서로 간의 원한을 풀어나지 못하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2독서의 바오로는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하느님의 마음가짐으로 용서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서로 같은 민족, 같은 형제라는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까지 무수하게 용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물론, 용서는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우리들에게 항상 기도할 것을 권고합니다.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함께 모여 우리 민족이 서로 화해를 이루고 일치를 이루게 될 것을 기도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주님의 은총과 도움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서로 용서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 기도할 때 하느님께서서는 반드시 우리 민족을 하나로 이어주실 것입니다.

그토록 견고하게 쌓여있던 동구권의 문이 열리고 서로 간의 교류가 이루어진 것도 최근의 일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언제나 순식간입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도 이처럼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통일의 순간을 잘 맞이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마음가짐은 분노와 악의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신앙인들부터 먼저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며 지혜롭게 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 염철호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

# 주춧돌

## 쓸모 있는 종 오네시모스

오네시모스는 골로새에 있는 필레몬의 집에서 몸 붙여 살던 노예였습니다. 당시에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로 재산 목록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물건을 사고 팔듯이 노예를 마음대로 매매할 수가 있었고, 사형시킬 권한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필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스는 혈기왕성한 젊은이로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살아온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행동을 했다고 추측되나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필레 1,4-11

주인 필레몬은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오로를 통해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필레몬은 그의 집을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로 사용하도록 내어놓을 정도로 열심한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오로와는 친구처럼 막역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당시 주인의 재산을 도둑질하거나 주인의 가족들을 살해하여 노예들이 도망치는 일이 흔했습니다. 오네시모스도 주인 필레몬의 재산을 도둑질하여 도망을 갔을 가능성이 큼니다. 사도 바오로는 필레몬에게 오네시모스를 돌려보내면서 특별히 어떤 부탁을 했나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필레 1, 12-17

도망친 노예가행여난 붙잡히기라도 하면 죽는 것은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죄수의 몸으로 갇혀있었던 사도 바오로는 비교적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우연하게도 그 감옥에서 오네시모스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사도 바오로는 오네시모스를 대신해서 필레몬에게 무엇까지도 대신 갚겠다고 했습니까?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필레, 1,18-22

오네시모스는 도망을 친 노예였지만 신아의 스승인 사도 바오로를 운명적으로 만나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말대로 그는 스승의 곁에서 충실한 협조자로 능력을 한껏 발휘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스는 사도 바오로를 만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둡고 무익한 삶이었지만, 미래가 밝게 열리고 무엇보다 쓸모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게 기뻐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역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은총이고 신비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글 허영엽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 복음 묵상

## 생명의 물 한방울

여름 한 낮 땀부스러기  
생명의 물 한방울...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당신을 찾습니다.  
제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합니다. (시편 63:2)

- 임의준 신부(서울대학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